



**캠퍼스의 봄...신학기 교재 구입 행렬**    겨우내 움츠렸던 캠퍼스의 봄은 도서관에서부터 찾아온다. 7일 오후 조선대학교 구내 서점이 신학기 교재를 구입하려고 물러든 학생들로 활기에 차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고속화 도로 전국끝까지 전남 새 공사 막는 '브레이크 정부'

보성~고흥 국도 확장 등 12건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 반려

도로 고속화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지역의 울 신규 도로·철도 공사가 첫 삽도 뜨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전체 예산 중 SOC 분야를 줄이고 있고, 전남도가 국고 지원 전에 '사업성을 검토해달라'며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를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예비타당성 건의가 반려돼 올해 전남도가 추진하려고 한 보성~고흥간 국도 확장 등 9건의 도로공사(사업비 1조8013억원)와 목포~군산 등 철도 3건(5조2147억원)은 아예 시작도 못하게 됐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도가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 건의 12건을 모두 반려했다.

반려된 사업은 ▲보성~고흥 국도 4차로 확장(예산 6665억원) ▲진상~다압 확장(1132억원) ▲구례구~구례읍 확장(600억

원) ▲구례~경남도 확장(2200억원) ▲장흥~안양 확장(1560억원) ▲남창~서흥 확장(760억원) ▲장성~대전면 확장(1495억원) ▲함평~해보 확장(1781억원) ▲담양~무정 확장(1820억원) 등 도로 9건이다.

또 ▲서해철도(목포~군산) 건설(2조5500억원) ▲광주역~암록역 철도건설(1조1500억원) ▲광주~혁신도시 광역철도(1조5147억원) 등 철도 3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이다.

총 사업비 5000억원 이상(국비 300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 사업 전에 수익성 등을 미리 따져보자는 취지다. 시·도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뒤 기획재정부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고, 이를 통과하면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전남도가 이번에 건의한 12개 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중앙부처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흔히 예타 선정 대상이 되기까지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이들 사업은 추진 자체가 힘들어졌다.

중앙부처가 이들 사업을 반려한 것은 지난해 열린 여수세계박람회 당시 전남지역 SOC에 투자가 집중됐고, 전국 다른 지역의 SOC 투자도 줄어어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지역은 서울시 등 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 중 도로 사정이 가장 나쁘다. 실제, 전남의 고속국도 연장은 313.100m로 8개 도 중 최하위이며, 산골이 많아 도로 공사가 힘든 강원도(339,090m)보다도 고속화율이 낮다.

또 도로 포장률도 74%로 팔도 중 6번째로 낮았는데, 미포장 도로(1,243,637m)와 미개통 도로(1,430,587m)는 4번째로 많다.

과거 정권으로부터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도)별 도로현황

도별	연장(m)	포장율(%)	미개통(m)	고속국도(m)
경기	13,377,325	84.9	1,518,641	610,460
강원	9,790,947	72.3	1,375,696	339,090
충북	6,753,834	78.0	821,033	315,320
충남	7,835,308	77.0	301,645	448,520
전북	7,997,735	73.1	961,724	422,180
<b>전남</b>	<b>10,288,513</b>	<b>74.0</b>	<b>1,430,587</b>	<b>313,100</b>
경북	12,416,188	74.6	1,680,306	536,380
경남	12,751,712	69.2	2,721,128	487,900
제주	3,206,179	84.0	391,306	

못해 도로 등 SOC 사정이 나쁜 전남지역이 현정권과 새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으로 또 한 번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로 사정이 열악한 전남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나주 혁신도시 '효과' 지역 일자리 '기지개'

지난 4일 우정사업정보센터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도시)에 이전함과 동시에 센터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업체들까지 나주로 회사를 옮겨오면서 지역 출신 인력 채용이 크게 늘 전망이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이미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등을 통해 구내식당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기간제 근로자 등 36명의 현지 인력을 채용했다.

또 우정사업정보센터 유지보수업체 2곳이 나주직업훈련원과 취업박람회를

해 지역 인재 채용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시스템개발업체인 대원씨엔씨의 김승권(26·동신대 졸업예정)씨는 "디지털콘텐츠학과 전공을 살리고, '바늘구멍'이라는 취업시장에서 직장을 갖게 돼 감사할 뿐"이라며 "회사가 나주로의 이점을 앞두고 학교에 추천을 의뢰해서 입사를 한 만큼 혁신도시 효과를 본 셈"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정보센터 백형국 예금정보과장은 "학생들이 연관기업에 채용돼 금융시스템과 국가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쌓게 되면 ICT 분야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규사업 확

통해 동신대와 조선대 등 지역대학의 관련학과 학생을 포함, 22명을 선발해서 인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업체들은 올해 우정사업정보센터의 5개과와 모두 200여명의 인력 채용이 필요한 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한전KDN의 연관기업 4개 업체에서 분사 이전 또는 지사 설립을 통해 100여명의 지역인력을 뽑기로 하고, 속소와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시·도의 지방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장파 시스템 운용에 따라 인력채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지난 2005년 6월 24일 혁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후 7년9개월 만에 나주로 이전했다. 이 센터에는 공무원 350명을 포함해 모두 816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scn@

**우정센터·협력업체 현지 인력 채용**  
**한전KDN·연관기업 100여명 뽑기로**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中관광객 4만명 순천만정원박람회 찾는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중국 관광객 4만여명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해외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면서 박람회 성공개최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 순천시의 설명이다.

순천시는 7일 "지난 4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조중훈 순천시장의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를 방문, 현지 여행사 및 언론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중국 업체들이 입장권 2만매를 예매했다"고 밝혔다.

남경시 중국여행사, 상해한도여유투자관리유한공사 등은 이날 설명회에서 정원박람회 기간 중 중국 관광객이 순천시

를 방문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고 정원박람회 입장권 2만장 예매한 뒤 지역별 대표 여행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상하이와 항저우지역 관광업체와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중국관광객을 태운 전세기가 매일 1편씩 취항하도록 했고, 여수항을 통한 크루즈 선박 10여 편을 운항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전세기

를 이용한 중국관광객 3만여 명과 크루즈를 이용한 1만여 명의 중국관광객이 정원박람회를 찾게 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조 시장은 "생태도시 순천에는 세계 5대 연안습지의 순천만과 조선시대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낙안습지민속촌 등 외국인 선호하는 관광지가 많이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4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순천만 일대에서 개최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 靑 "정부조직법 안돼도 예산 예정대로 집행" 75조원 상반기에

정부조직 개편 미비로 각종 민생법안과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광주일보 7일자 1면)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정부조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정해진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4면>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이미 집행 결정이 내려진 민생 예산 약 75조원을 상반기 내 조기집행토록 조치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춘추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민생경제가 광장히 어려

워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 중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며 "전체 예산 중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산은 140조원으로 이 중 60% 정도인 75조원은 상반기 내에 예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선(先) 집행방식은 당장 지출되지 않더라도 각 부처별로 재무관 결재를 통해 사업별로 계약을 미리하는 '지출원인행위' 방식이라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인수위에서도 전체 예산 지출의 60%인 170조원이 금년 상반기 내 집행

하도록 결정할 바 있다"며 "12개 부처는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12개 부처 소관 예산이 140조원 정도 된다. 이 중 정부조직법 핵심인 미래부 소관 예산이 12조원"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물가안정관리와 관련, 공공요금 인상을 핑계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자제토록 정부가 물가회의를 주 단위로 개최하고, 조만간 물가와 밀접한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확정짓기를 계획한다. /박지경기자 jkpark@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평생 소모품 무상서비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 / Tel. 062-226-0001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 / Tel. 062-226-0001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 / Tel. 062-226-0001